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6
2019

죽도해변

5월 22일 양양읍 조산리에서 열린 플라이강원 본사 사옥 기공식

양양소식

Vol. 289

CONTENTS

양양소식 · 289호

| 발행일 2019년 5월 27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의기양양

4 **뉴스 브리핑**
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5 양양군에 본사 사옥 기공식, 플라이강원 운항 사업 신호탄
6 제24회 군민문화상 수상자 선정
7 양양 전통시장 야시장으로 즐길거리 선보여
8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로 민원 편의 제공
9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0 **의정소식**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희망양양

12 **기획취재** 꿈틀대는 서핑의 성지
14 **ISSUE & PEOPLE**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꿈꾸는 삶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상평리 김학구 장례 만세운동

오감양양

18 **SNS 속 양양** 숲속의 집에서 즐기는 우리만의 힐링 타임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손양면 학포리
22 **맛있는 양양여행** 배낚시와 노랑가자미

열린양양

24 **책이야기** 프레임 / 이달의 신간
25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와 조기착공을 기원하는 양양군민 염원제가 16일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지에서 열렸다.

우리군은 2016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 통보를 받은 이후 2년 6개월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추진해 왔다.

보완서에 담긴 5대 부대조건 내용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으로 특히 2여년의 자료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완된 산양분야의 보완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자료이자 남설악 동식물 생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해를 더할 자료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10시 하부정류장 예정지에서는 보완서 제출을 위한 원주지방환경청 방문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 주관으로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회원, 양양군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양양군 사회단체장 및 오색 1 · 2리 마을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성공과 조기 착공에 대한 양양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염원제가 있었다.

식전행사 최혜선 교수의 기원무 '하늘에 바라다'를 시작으로 대통령과 환경부장관에게 드리는 호소문 낭독과 구호를 제창하며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주민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행사를 주관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 정준화 추진장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를 덮친 화마로 죽어가는 강원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라며 "친환경적인 공사를 시행하려는 주민의지가 강력한 만큼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를 기대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양양군민 염원제

한편, 우리군은 환경단체 및 시민소송단이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승소하여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백두대간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 · 허가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친환경케이블카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문의 오색삭도추진단 삭도행정담당 Tel. 033-670-2530

양양군에 본사 사옥 기공식, 플라이강원 운항 사업 신호탄

양양읍 조산리 388번지 본사 사옥 조성, 오는 8월 입주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본사 사옥이 지난 22일 오전 11시 기공식을 갖고 플라이강원 운항 사업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플라이강원 본사 사옥은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88번지에 대지 면적 5,443㎡, 건축 연면적 2,870㎡에 지상2층 규모로 건립(주차장 50대)돼 오는 8월 입주하게 된다.

경영전략본부, 영업서비스본부, 운항본부, 정비본부, 안전보안실, 종합통제실과 승무원 관련 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AOC 서류검사 후반 일정과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공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하 양양군수, 이양수 국회의원 등 기관 ·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고 준공을 기원하며 진행됐다.

이에 앞서 22일 오전 9시 30분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재로 플라이강원 취항 대비 공항이용객 입출국 심사 · 수송 대책 보고회를 갖고 플라이강원 취항 대비 행정 · 유관기관 · 항공사 · 업체 간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지난 3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항공기 10대를 운항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국제 정기노선 25개 이상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5개 대학과 승무원 등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맞춤형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해 신규 채용 직원 50~70%를 도내 대학 출신과 주민으로 채용한다.

문의 대외정책과 공항지원담당 Tel. 033-670-2266

양양군, 제24회 군민문화상 수상자 선정

양양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문화 축제인 제41회 양양문화제가 내달 20일부터 개최되는 가운데 양양군이 군민문화상 수상자를 2명을 선정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군민문화상은 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 · 격려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을 적극 육성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우리군은 문화예술과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지난 5월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심사위원회에서 2인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문화예술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이상권 목재체험지도사는 양양군의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목공전통체험지도사 양성교육원을 설립하여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등 양양군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산림교육전문가, 기후변화 교육 강사로서 많은 군민들에게 양양군의 자연자원을 전달하는데 현격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사회봉사분야 수상자인 이창규 수상리장은 지역 사회에서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바르게살기회 등 각종 봉사단체에서 연탄봉사활동, 지역 환경 정비,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태풍이나 겨울철 폭설 등 각종 재난재해 상황 시 물품배급 및 현장정리를 위해 활동했다. 이밖에도 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상권

이창규

이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내달 20일 남대천 둔치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는 양양문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Tel. 033-670-2728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15년만에 새단장 추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이 15년 만에 새단장에 나선다.

관내 유일하게 음향 · 조명 시설을 갖춘 공공 공연장으로서 연간 22,000여명의 군민이 관람하는 시설인 양양군문화복지회관을 내달 실시설계에 들어가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양양군문화복지회관은 양양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2004년 공연장 714.42㎡, 객석 378석으로 건립되어 군민 · 문화예술단체의 문화공연장 및 복지시설로 활용되었으나, 건립된지 15년이 경과해 현재 각종 행사 및 공연 시 공연장이 협소하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및 행사운영에 한계를 보였다.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공간을 활용 하면서 공연장을 2층으로 증축하여 객석수를 늘려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최적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할 예정이다.

사업 분야는 공연장 증축(2층) 180.16㎡와 객석의자 94석 추가설치 등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7억원(군비)이 투입된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대형 공연시설을 갖춤으로써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년 말 준공이 되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관리담당 Tel. 033-670-2795

여름의 시작과 끝, 양양 맛있는 야시장과 함께

'맛있는 양양 야(夜)시장' 관광객 발길 사로잡아

7월 25일~26일, 8월 1일~2일, 8월 7일~8일, 9월 20일~21일 총 4회 운영 예정

지난 5월 17일 양양웰컴센터 일대에서 첫 개장을 맞은 양양 맛있는 야시장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 잡았다.

평소 양양의 밤 8시는 매우 고요하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해는 길어졌지만, 양양전통시장의 인적이 드물다. 일부 관광지 주변의 상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점들은 일몰을 전후해서 문을 닫는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양양 주민과 관광객들은 밤에 놀 거리가 부족하다고 하고, 반대로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그러하다고 한다.

관광객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하고자 지난해 여름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양양 맛있는 야시장'이 시범운영 되었다. 그 결과 3일간 3,500여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양양전통시장을 찾아 발 디딜 틈 없는 시장의 밤 풍경을 자아냈다.

시범운영의 경험과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정비하고, 양양웰컴센터 일대로 장소를 이동하여 '양양 맛있는 야시장'을 5월 17일(금) 개장했다. 오후 5시~10시까지 이틀 동안 양양웰컴센터 앞 제방도로에서 열리는 야시장에는 지역특화먹거리 교육으로 개발된 표고닭강정, 설악샌드위치, 양양떡갈비와 더불어 키조개버터구이, 불게강정, 소세지구이, 치즈구이 등 푸짐한 즉석먹거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신선한 로컬농산물, 아동복, 악세사리, 가죽공방, 문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이틀 동안 약 5천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대부분의 셀러가 완판기록을 세웠고, 작년 시범사업 대비 일평균 약 1.5배의 매출을 가져왔다.

특히 야시장의 볼거리를 더해주는 문화공연은 5월 초 전국단위 공모를 진행해 선발된 40여 팀으로 구성되었다. 양양과 양양에서 진행되는 야시장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 축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재능 있는 주민들의 공연과 부족했던 아이들을 위한 공연으로 비누방울 퍼포먼스, '버블아트쇼'가 진행되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또한 주요 관광지인 낙산해수욕장(제1주차장)과 쏠비치 리조트(오산리선사유적지 주차장)를 경유하는 셔틀버스 운행하여 야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계속되는 야시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양양 맛있는 야시장은 7월 25일(목)~26일(금), 8월 1일(목)~2일(금), 8월 7일(수)~8일(목), 9월 20일(금)~21일(토) 열릴 계획이다.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양양 맛있는 야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연팀을 상시모집하고 있으며, 셀러 또한 추가로 받고 있다. 공연팀 또는 셀러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블로그(https://blog.naver.com/hiyangyang2018)를 통해 문의 · 신청 할 수 있다.

문의 대외정책과 전략사업담당 Tel. 033-670-2287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로 민원 편의 제공

6개 읍 · 면에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 완료

우리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 민원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청 민원실과 거리가 먼 현남면사무소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민원인의 방문이 많은 양양읍사무소와 강현면사무소는 지난 2015년과 2017년부터 운영 중으로, 간단한 서류의 경우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해 민원 대기시간을 아낄 수 있고, 주말 또는 연휴 기간에도 발급이 가능해 주민 및 민원인의 활용도가 높았다.
이에 우리군은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군청, 서면 · 손양면 · 현북면사무소 민원실 등 4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했다.
주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주민등록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무서 · 등기소 등 타 공공기관 증명서류를 비롯해 85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증명서를 제외하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해 50%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달 양양읍 신규 설치를 끝으로 6개 읍면에 민원용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이 모두 구축된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손가락 터치로 토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발굴 ·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허가민원실 민원행정담당 Tel. 033-670-2241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 개선 추진

농기계 통행 불편 해소 및 교통 사고 유발 제거, 12월중 준공 예정

우리군은 국도7호선을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추진한다. 많은 농업인 및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방문객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진출입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도7호선과 접해있는 센터입구와 양쪽 화단 190m를 확장 및 정비하며, 강릉방향으로 이동하는 방문객들이 양양대교를 건너 유턴하여 다시 들어오는 불편이 있어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방 연결도로 30m도 연결하며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중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며, 우리군은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한편 우리군은 군도 4호선 제방도로와 국도7호선를 연결하는 접

속도로 개설사업도 검토중에 있으며 본 사업과 연계추진 할 방침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 Tel. 033-670-2701
안전건설과 도로시설담당 Tel. 033-670-2773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어린이세상~!!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
2.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3. 나눔은 행복입니다. 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
4. 양양읍 조산리 마을,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
5. 함께 걸어요~! 건강 愛 치매 愛, 야간걷기대회
6. 양양읍주민자치위원회,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과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7. 축하합니다. 양양향교에서 열린 성년의 날 행사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조례안 8건 심의 · 의결

지난 4월 23일 개회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가 4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양양전통시장 홍보조형물 제작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양양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에서 의원들은 양양전통시장 주차난 심각에 따른 조속한 사업추진, 장날 장세 부과에 대한 행정불신 해소 등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곤충생태관 활용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 · 의결했다. 그중에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제4차 양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월 190만원을 월 185만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고,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기존의 조례안(동일한 조례명)은 부결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단원모집 절차에 공개전형을 추가로 명시하고,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조례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수정가결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양양군의회,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식기구 출범

양양경찰서 신설 촉구 및 홍천 철도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

강원도시 · 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원규 춘천시의장) 제203차 월례회가 지난 5월 16일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하부조직으로 지역협의체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설립총회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들은 홍천 철도건설 촉구 건의문과 양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홍천군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철도망 계획이 없는 도시로 용문~홍천, 원주~홍천~춘천 간을 잇는 철도건설 유치를 통해 강원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홍천 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양양군의회 고제철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양양군은 경찰서, 교육지원청이 없는 강원도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최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등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2020년 양양경찰서 신설 예산안이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양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했다.

꿈틀대는 서핑의 성지

동해안의 해변은 크게 성수기, 비수기로 나뉜다. 특히 해수욕장 운영 여부로 이를 가름하고 있는데, 최근 2~3년 전부터 양양의 해변에는 독특한 셈법이 등장했다. 바로 겨울철에만 문을 닫는 서핑샵들의 운영여부가 해변의 풍경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남애부터 하조대, 죽도, 물치에 이르기까지 해변을 따라 자리 잡은 서핑샵들은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문을 닫았다가 4월부터 시즌을 준비한다. 일찍 시작한 무더위와 함께 드디어 서핑시즌이 시작됐다.

달라진 해변 풍경

본격 시즌을 앞두고 죽도 해변에는 새로 지은 건물들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고, 몇 곳은 포크레인과 트럭이 들락거리며 한창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곳곳에는 보수 중이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곳들도 눈에 띈다. 세련된 디자인의 카페와 식당, 수제 맥주 펍 등이 들어서면서 양양의 해변은 트렌디한 곳이 됐다.

처음엔 죽도 · 인구 해변에서 서퍼들이 드물게 보인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대부분의 해변에서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을 만날 수 있다. 수심이 낮고 평평한 편이어서 연중 양질의 파도가 찾아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양양은 서핑의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다.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국내 서핑인구는 최근 3년간 5배가량 증가해 2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폭발적인 인기다. 해변에는 하나 둘 서핑샵들이 생겨나더니 전국의 100여개 서핑스쿨 가운데 60여개가 양양에 자리 잡을 정도로 양양은 한국 서핑의 메카로 자리집았다. 뒤이어 식당과 카페들이 문을 열면서 색다른 풍경이 만들어졌다.

서퍼들의 터전

서퍼들은 양양을 '한국 서핑의 성지'라고 부른다. 성지로 불리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 떠난 서퍼들이었다. 양양으로 온 서퍼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몇 년 전부터 파도를 찾아온 서퍼들이 양양에 자리 잡더니 이제 해변은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 자발적으로 모인 서퍼들의 터전이 됐다. 파도가 좋은 날엔 서핑을 하러 가고 파도가 좋지 않은 날에 일을 하거나 다른 볼일을 본다.

아예 거주지를 이전해 양양주민으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서핑을 직업으로 삼은 이들도 생겼다. 바로 서핑용품가게와 강습소 종사자들이다. 대부분의 서핑샵에서는 서핑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 강습을 함께 하고 있다. 샤워장과 숙소, 식당, 자전거 대여점을 갖춘 곳도 있다. 해변거리는 알록달록한 서핑샵과 카페, 식당, 소품샵 등이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던 마을은 이제 젊은 기운이 차고 넘친다. 주말이면 대형버스를 탄 관광객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서핑 강습을 받으러 오는 이들로 마을이 북적인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온전히 자연과 하나가 되는 서핑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친근하고 매력적인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 그 이상, 서핑의 미래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서핑은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나 서핑이 다른 스포츠와는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서퍼들의 행동방식이나 사용하는 언어, 패션, 음악 등을 포괄한 서프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정점을 이뤘던 서프 문화는 지금껏 수많은 하위문화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핑보드 제작 산업부터 패션, 관광산업, 친환경 운동까지 확장되면서 강력한 파생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당장 양양군에서도 서핑샵을 비롯해 신규 상점들이 문을 열었고 해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비치마켓이 열리고 있다.

현재 양양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단연 '서핑'이다. 양양군은 최근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었던 죽도 해변에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서퍼시티 완성을 목표로 2021년까지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통해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서핑 테마거리와 바다 둘레길, 볼파크 공원, 활어 판매장, 프리마켓 공간 조성에 나선다. 서핑페스티벌을 확대해 서핑 산업화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핑과 관련된 기업과 주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추진하는 양양 YY서핑특구도 추진하고 있어 기대된다. 다시 도래한 서핑 시즌,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양양의 새로운 가능성이 꿈틀대고 있다.

〈글 · 사진 : 편집부〉

ISSUE & PEOPLE _ 이현승 영화감독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꿈꾸는 삶

지난 3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죽도 서핑 다이어리〉는 여러모로 특별한 영화로 주목받았다. 서핑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영화이자 모든 촬영은 오로지 죽도 해변 근처에서만 이뤄졌으며 배우들은 모두 서퍼인데다 현지 주민들이 함께 출연했다. 특히,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대안의 블루〉, 〈시월애〉 등을 제작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이현승 감독이기 때문이다. 바닷가 작은 마을을 사랑해 죽도 해변으로 이주한 양양군민 이현승 감독을 만나봤다.

파도를 사랑한 영화감독

1992년 영화 〈그대안의 블루〉로 데뷔한 이현승 감독은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에서 각각 신인감독상과 미술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영화에서 보기 드물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화면미학으로 평가받았다. 세련된 영상미를 선보이며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1995년)', '시월애(2000년)', '푸른소금(2011년)' 등의 영화를 연출해 오는 한편, 제1대 경기공연영상위원장, 미장센 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제3기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내 영화사에 굵직한 임무도 맡아왔다. 영화기획과 제작, 영화정책 분야는 물론 현재 중앙대 영화학과 교수로서 미래영화인들의 교육까지 하고 있는 그는 3년 전, 문득 양양군민이 됐다.

"바다를 좋아했던 저는 6년 전부터 양양을 드나들었어요. 하와이 등지에서 서핑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서핑하기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조용하고 한적한 바다에서 판때기(서핑보드) 하나에 몸을 싣고 둥둥 떠다니면 바다를 통해 지구의 진동이나 변화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서핑의 매력에 빠져서 양양에 살 곳을 마련하고 자주 오게 됐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조용한 죽도 해변으로 내려와 서핑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마주친 지역신문의 한 기사는 이현승 감독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강원도에는 아기 울음 대신 곡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그는 2017년 양양 현남면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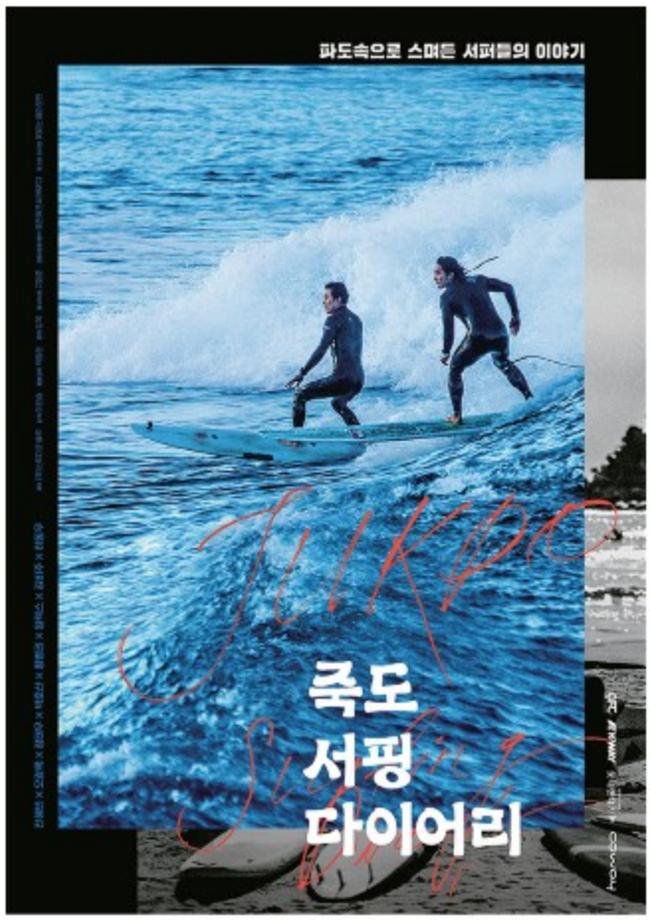
"해외 곳곳에 바다에 가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바다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이곳에는 주말에는 젊은이들이 놀러와 북적이다가도 평일에는 마을 어르신들밖에 없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이 아름다운 곳에도 일상의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닷가 마을 이야기, 죽도 서핑 다이어리

서울과 양양을 오가며 생활하던 이현승 감독은 이곳 주민이 되면서 점차 양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죽도해변을 배경으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영화촬영을 시작했다. 영화에는 평소에도 죽도를 자주 찾던 배우 전혜빈, 정태우, 오광록 등과 실제 마을 주민들이 출연해 모든 촬영은 죽도 해변에서 진행됐다. 흥행한 상업영화를 만들었던 그에게 〈죽도 서핑 다이어리〉는 특별한 영화다. 배우들은 촬영에 상관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해변으로 왔고, 마을 주민들은 사전 약속 없이도 기꺼이 출연하거나 선뜻 장소를 제공해줬다.

"처음부터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든 영화이기에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고 특별하죠. 서핑을 사랑하는 배우들, 죽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만들어 고유한 매력을 가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낮에는 서핑을 하고 밤에는 해변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그랑블루 페스티벌'을 만들어 올해 3회를 앞두고 있다. 작은 마을에서 페스티벌을 진행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어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야외극장을 매번 설치한다. 기업을 설득하고 후원을 받아 행사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함께 일할 젊은이들도 없어 서울에서 인력을 데려와서 준비하느라 비용은 서울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승 감독은 이곳에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더욱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야외극장에서 주말마다 상영회를 열고 티켓 대신 산불피해 지원금을 기부하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경험과 삶을 나누는 곳

서울토박이로 살던 이현승 감독은 그동안 이웃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잊고 살았다. 대도시의 각박함 속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 아닌 잠을 자는 곳일 뿐이었지만, 양양에서는 이웃과 교류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게 됐다.

"주소지를 이전하러 갔는데 면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와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걸 주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사람 하나 줄고 느는 것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 정도 머물다가 4일로 늘어나고, 지금은 서울 볼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루 이틀씩 보고 와요. 서울만 가면 빨리 돌아오고 싶어져요."

그는 이제 서울보다 죽도해변에 머무는 날이 많다. 낮에는 서핑을 하고, 밤에는 영화를 보고, 또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책방을 만들고 있다. '파란책방'이라고 이름 짓고 주민들과 여행객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빌려가거나 살 수도 있는 공간을 꿈꾼다. 중고책을 기부 받고 수익이 난다면 마을에 장학금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서핑만 하러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마을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현승 감독의 생각이다. 파도를 좋아했던 그가 바다를 사랑해 자리를 잡은 것처럼 어쩌면 누군가도 이곳에서의 삶을 꿈꾸길 바라면서.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의 3 · 1만세운동

4월 6일 상평리 김학구 장례 만세운동

1919년 4월 6일은 양양 3 · 1만세운동 제3일 째 일어난 날로, 양양면 · 손양면 · 강현면 · 도천면 · 서면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 중 서면 상평리 김학구(金學九)의 장례 만세운동은 전국 기미만세운동 중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만세운동이었다.

첫 번째는 손양면, 강현면, 도천면의 군중이 양양면에서 와서 만세를 불렀고, 두 번째는 양양면 양양보통학교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경찰서 뒤 언덕에 올라가 만세를 불러, 어린 학생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세 번째는 4일 장날 경찰서 마당에서 일경의 총탄에 숨진 서면 상평리 김학구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었다.

장례 행렬

농자천하지대본 농기

손양면 · 강현면 · 도천면 군중이 양양으로 들어오다

손양면은 상왕도리 구장 김종택(金鍾澤), 주리 구장 최한두(崔漢斗), 우암리 구장 김진렬(金振烈)이 주동이 되었다. '대한독립지기(大韓獨立之旗)'라고 쓴 깃발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기를 들고 농악대까지 대동하고 남대천 다리에서 저지하던 일본 수비대를 뚫고 양양장터로 들어왔다.

또한 강현면과 도천면의 군중들은 5일 대포주제소에서 일본 경찰이 물러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6일은 아침 일찍부터 삼베주머니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고 15km 이상 되는 양양까지 만세를 부르며 걸어서 들어왔다. 어제는 대포주재소에서 일본 경찰 가족들이 이미 배를 타고 피신해 있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만세를 부르면 정말 독립이 될 것 같아서 바쁜 농사일을 모두 미루고 양양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양양면의 사정은 달랐다. 점점 거세져 가는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1개 소대 군 병력이 양양군에 주둔하였다. 이재훈과 김원식이 앞장선 군중들이 양양면 연창리에 이르렀을 때가 오후 1시경이었는데, 수비대는 새끼줄로 길을 막고 통과를 막았다. 한참 동안을 옥신각신 대치하다가 새끼줄을 끊어버리고 만세를 부르며 양양장터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

이미 들어온 손양면 300여 명의 군중과 강현면과 도천면 만세군중이 합세하여 경찰서장과 군수는 "양양에서 떠나라"고 요구했고, 만세군중은 '대한 독립 만세'를 계속 외쳤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만세군중에게 '일본 사람은 돌아 갈 테니 군중도 돌아가라' 고 허리를 굽혀 간유(懇諭 · 정성을 다하여 회유)하며 빌었다. 그리하여 일본 경찰의 물러가겠다는 설명을 듣고 만세 군중은 오후 늦게 모두 돌아갔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얼마 후에 만세운동 가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피신한다고 해도 그들의 가족을 괴롭혔고, 또 한창 못자리철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수하여 태형을 받고 농사를 지어야 했다.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인, 이정렬, 이재환 등은 자수하여 60대(2개월의 자유형)의 태형을 받았고, 정암리 김사만도 태형 180대를 나누어 받았다.

양양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이날 경찰서 뒤 군행리 언덕에서 양양보통학교 학생들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자 4학년 졸업반 김억준(金億俊), 이창식(李昌植) 외 1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김억준 학생은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까지 끌려갔다가 나이가 어려서 풀려나왔지만, 이렇게 양양 3 · 1만세운동은 남녀노소 어린 학생들도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면 상평리 김학구의 장례 행렬 만세운동이 일어나다

지난 4일 양양 장날 경찰서 만세운동에서 총살당한 김학구는 원래 강현면 침교리 사람이었는데, 서면 상평리 권성심에게 데릴사위로 와서 처가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장날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함홍기, 권병연은 일본 경찰의 칼에 맞아 숨졌고, 김학구는 경찰이 발포한 총탄에 경찰서 마당에서 숨졌다. 일본 경찰이 유혈이 낭자한 시신을 경찰서 뒷마당에 옮겨놓자, 서면 책임자 노용수가 "끌고 가자" 라고 소리치자 이형우가 업어 자기 집 뒷마루 밑에 멍석으로 덮어 안치했다. 다음날 가족이 찾아가 장례를 치렀는데 전국 기미독립만세 중 유래가 없는 특이한 만세운동으로, 나라를 잃은 민족의 눈물 속에 치러진 장례 만세 사건이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는데 통곡의 행렬이었다. 상평리 마을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서면사무소로 갔는데, 이미 상여가 도착하기 전에 격분한 주민 100여 명이 먼저와 만세를 부르면서 면사무소를 습격하자 면장과 면 직원들은 도망쳐 버렸고 면사무소는 텅 비었다. 만세운동은 바쁜 농사철에 일어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참여하여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고, 상여를 맨 사람들은 상엿소리로 원통한 영혼을 위로하다가 다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상여는 면사무소를 떠나 외진 산길을 따라 30여 리 되는 그의 고향 침교리로 상엿소리와 만세를 부르며 강현면 물갑리 고개에 이르렀다. 이때 강현면 침교리에서도 상여를 메고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양 마을 사람들은 통곡을 하며 관(棺)을 서면 상여에서 강현면 상여로 옮겼다. 마침 양양면 만세 현장으로 가던 강현면과 도천면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통곡하니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후일 중도문리 이종인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동기가 죽은들 그렇게 눈물이 나겠습니까?"라며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침교리로 와서 장례를 지냈는데 일본 경찰은 여기까지 찾아와 사설묘지에 묘를 썼다고 하여 다시 파내어 공동묘지로 옮겼다고 한다." 또한 서면 구룡령 넘어 조개리 지석화(池石化)는 장례식 군중이 먹을 음식 100여명분을 준비하여 걸어서 상평리로 왔다가 경찰에 결국 체포되었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다시 면사무소 앞에서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4월 11일자 강원도장관의 보고를 보면 "사흘 동안 면사무가 중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숲속의 집에서 즐기는 우리만의 힐링 타임

벌써 2019년도 반을 달려왔다. 새해에 다짐했던 소망과 목표를 잊은 채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있다면, 바쁘게 달려온 하루하루 나의 첫 번째 보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었다면, 가족을 위한 양양의 숲속여행을 준비해 보자.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짜릿하면서도 동화같은 하룻밤_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으로 숲속여행을 떠나본다. 온 가족이 함께 텐트를 치며 모험이 시작된다. 숲해설가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작은 폭포와 개울을 지나며 자생식물원도 탐험해 본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들꽃 한 송이 나무 한그루도 특별한 시간을 만든다. 목재문화체험관에서는 나만의 나무목걸이를 만들고 숲 치유프로그램으로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아로마스톤도 만든다. 이번에는 강도를 높여 하늘나르기에 도전한다. 숲속기차를 타고 정상에 올라 슈퍼맨이 되어 580m를 짜릿하게 활강하니 지금껏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다. 숲속으로 둘러쌓인 캠핑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밤하늘 별빛 아래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내일은 아침 일찍 구탄봉에 올라 양양의 전경을 구경하자며 계획을 세워본다. 온 가족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서 동화같은 하룻밤을 보낸다.

특별하고 재미난 역사여행 _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아이들에게 세상은 물음표로 가득하다. 아이들의 질문 세례를 받다 보면 일상적이고 당연했던 것들도 왠지 특별해 보인다. 양양오산리유적박물관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되어준다.
디오라마로 제작된 수렵, 어로, 채집 등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새겨두는가 하면 덧무늬토기와 인면상을 보며 책에서 본거라며 신기해 한다. 한참을 토기퍼즐 맞추기에 집중하며 자리를 지키기도 한다.
전시실 밖으로 나오자 신석기인들의 생활터전인 쌍호와 함께 체험장, 탐방로, 움집에서 신나게 뛰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가득하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서 보고, 듣고, 뛰고, 체험하다 보니 막연하게 느껴졌던 신석기시대가 한 발자국 가까워짐을 느낀다.

〈글 · 사진 : 편집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 양양군 양양읍 고노동길 98-50(033-670-2644)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33(033-671-2000)

6월 양양 여행 핫 플레이스는 바로 여기~!!

슈퍼맨이 되어 슝~! 하늘나르기

숲속기차타고 고고고~!

6월 8~9일 비치마켓@양양

양양에서 즐기는 서핑!

손맛을 느껴봐 가자미낚시

찍으면 인생샷~! 하조대 등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鶴浦里)

학(鶴)이 품은 마을, 인정(人情)과 협동의 마을

양양군에는 농 · 산 · 어촌을 모두해서 124개의 마을이 있다. 이 중에서 '학'(鶴)과 연관되어 지명으로 불려지고 있는 마을은 손양면의 〈학포 마을〉뿐이다.

대체로 '학'(鶴)들이 매년 날아 와 일정기간을 머물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 그 마을을 '학마을'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포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학이 날개로 품은 마을'이라고 하며, '학이 날개를 펼쳐 마을을 감싼 모양으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중구봉(구봉산이라고도 함)은 학의 머리이며, 10여개의 골은 학의 날개깃에 해당 한다'고 한다.

이러한 지형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학포 마을은 주민들의 인정(人情)과 협동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을을 들어서는 곳곳마다 화단을 꾸미고, 가꾸는 정성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양양 과채류 으뜸마을〉로 재도약을 준비하는 학포리 주민들

학포 마을은 36가구 71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비닐하우스 농법이 일찍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양양군 내에서 하우스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농촌마을이 되었다. 마을의 비닐하우스 면적은 전체를 묶으면 1만여 평에 이른다. 재배 작물로는 고추 · 딸기 · 토마토 · 오이 · 배추 · 무 · 상치 등의 과채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10여 년 전에 〈양양 과채류 으뜸마을〉로 선정되어 그 명성을 잇고 있다.

최근 들어 '대추방울토마토'를 주요 재배 작물로 해서 집집마다 생산량을 높이고자 2018년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도전한데 이어 올해는 작물을 바꿔 또 다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농법을 통한 〈기업형 새농촌 사업〉 도전

학포 마을은 최선봉 이장을 중심으로 매월마다 하우스 농가 모임을 갖는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원예를 통하여 재배지대 · 토양 등의 재배환경조건, 노동력, 재배기술 등 제반 요인을 검토한다.

그리고 다른 지대 및 재배농가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채소 종류를 선택하고, 재배와 경영기술의 전문화 및 합리화라는 점에서 한 개 또는 몇 개의 채소를 중점적으로 재배하는 것 등의 유리한 점을 논의해 왔다. 또한 채소재배에 비닐하우스 농법을 이용할 경우 국내 성공 우수 사례(영양의 고추단지 등)를 통해 생산단지를 형성해서 재배할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생산과 유통·판매에 적합한 품종이 〈고추〉이기에 2019년 '기업형 새농촌 사업'의 아이템은 방울토마토에서 고추로 품종을 바꾸고 고추 공동경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고추 농사로 얻은 수확물은 HACCP(햇셉) 시설과 안전한 먹거리(GAP) 인증을 통해 양양·속초지역에 소재해 있는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양양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판로망을 구축하고자 협약도 맺었다. 농업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는 기업형 새농촌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데 있어 매우 큰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자 마을 공동생산 비닐하우스 운영팀을 비롯하여 '판매팀'(특산물 판매 및 홍보)을 구성했다.

최선봉 이장은 "학포 마을 주민들이 협동과 인정(人情)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가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농법은 고추재배이며,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꼭 필요한 식재료"임을 강조하였다.

오래된 것일수록 더 오래가고, 가장 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진리를 되새기며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도전하는 학포 마을의 '매운 고추 맛'을 기대한다.

〈글 · 사진 : 편집부〉

공자(孔子)도 입맛 탐했을 양양의 제철 별미

배낚시와 '노랑가자미'

귀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다. 오로지 손끝의 감각이나 촉감으로만 들을 수 있는 감각적 느낌의 소리이다. 보이지도 않으며,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으며,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은 '복불복'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기꺼이 추상적 기대감으로 드리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벚꽃이 피고 지고, 드디어 여름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아카시아 꽃이 뽀얀 쌀밥 뭉텅이처럼 뭉실뭉실하게 피기 시작할 때가 감각의 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는 천수(天壽)를 누리며 "밥은 봄처럼 먹어야 하고, 국은 여름과 같이 먹어야 하고, 장국은 가을과 같이 선선해야 하고, 음료는 겨울처럼 찬 것이 좋다" 하며 이루 말 할 수 없는 까탈스러운 식성으로 제철음식 고집을 피우던 공자(孔子)에게도 흥미진진할 만한 양양의 대표적 해양레포츠체험 '가자미 배낚시'이다.

특별한 낚시기술 없어도 즐거운 요령의 가자미낚시

'가자미 배낚시'는 1997년부터 상품화 형태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체험객이나 '전문 낚시꾼'들까지 즐겨 찾을 만큼 선호도가 많은 수산항을 빼놓을 수 없다. 수산항은 푸르고 더 깊은 먼 바다까지 가두고 있는 듯한 위엄있는 방파제를 갖춘 양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구이다. 더불어 포구를 날아다니는 갈매기 날개 짓인가 싶은 하얀 요트들의 너울질도 눈요기 감이고, 봉화를 피워 올리던 해발 60m 높이의 봉수대 전망대에서는 포구에 둘러싸인 마을 전경은 물론, 고기떼를 쫓는 고깃배들의 행렬도 서슴없이 가슴 후련하게 내려다 볼 수 있는 풍광까지 '덤'으로 있어, '가자미 배낚시'의 기대감만 챙겨 갈수 있는 곳이 아니다. 가자미 배낚시는 포구로부터 10여분 남짓한 거리의 연안에서 특별한 노하우 없이 곧바로 즐길 수 있는 선상체험이다. 미끼를 끼운 낚시 바늘을 물속으로 내려두고 까딱까딱 들었다 올렸다 하다보면 툭툭거리며, 무엇인가 묘하게 낚시줄을 타고 손끝으로 전달되어 느껴지는 감각을 느낀다. 이내 낚시줄을 감아 들어 올리면, 미끼를 덥석 문 가자미가 잡혀 올라오는데, 한 마리 잡은 것도 즐거울 판인데, 때론 낚시 바늘마다 줄줄이 꿰어 올라오는 '복불복'의 묘미에 흠뻑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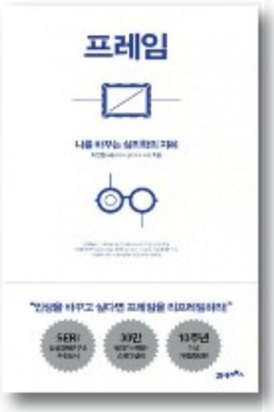
조림, 튀김, 횟감 어떻게 먹어도 좋은 참가자미

수산항을 비롯한 양양의 포구 연안에서 요즘 주로 잡히는 종류는 양쪽 지느러미가 노란색을 띄고 있어 '노랑가자미'라고 부르는 '참가자미'이다. 함흥냉면의 상징적 고명인 횟감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얕은맛의 '물가자미'보다 진한 담백함과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찰진 살맛의 풍미가 좋아, 예부터 대우를 톡톡히 받고 있는 '효자 생선' 참가자미이다. 다른 생선과 달리 저장성이 좋아 잘 말려 냉동실에 넣어 두고, 고봉밥 한 그릇도 너끈히 비울만한 짭조름한
간장양념 조림도 좋으며, 기름에 살짝 튀긴 맛도 별미로 좋지만, 바로 잡은 생물 가자미를 손질하여 튀김옷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튀겨 낸 가자미튀김은, 까탈스러운 공자(孔子)의 입맛까지 농락할 만큼 부드럽고 고소한 맛도 일미일품이다.
참가자미 맛의 진수는 무엇보다도 보통 뼈째 썰어 먹는 회의 일종인 '세꼬시'로 불리는'가자미 뼈째회'이다. 포슬포슬하게 썰어 낸 참가자미회를 참기름과 마늘로 양념한 막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는 맛을 덕목으로 친다. 광어나 도다리에 버금갈 이상으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감칠맛이 난다. 뼈까지 오독오독 씹히면서 씹을수록 고소한 참가미회 맛을 즐겼다면, 참가자미 물회 맛도 빼놓을 수 없는 양양의 제철 별미이자 별식이다. 만천하에 호사롭게 즐겨 핀 꽃들이 눈맛이라면 요즘 양양의 봄 바다에서는 참가자미만으로도 호사롭게 입맛이다.

〈글 · 사진 : 강원도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책 이야기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 최인철 지음 / 21세기북스 / 2016

이 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프레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맥락과 관점을 통칭합니다.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은, 우리의 모든 정신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대상과 고려조차 못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사유지였던 '생각'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생겨난 프레임이 만들어 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허점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마음의 창에 의해서 생겨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레임의 존재를 인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으로 인한 마음의 한계를 직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절대 겸손, 이 겸손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의 창을 점검하고 새로운 창을 갖추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축복이자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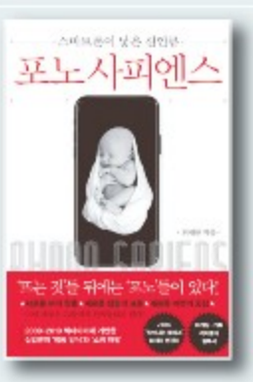
더불어 읽으면 좋은[册]

-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지음, 8.0, 2011
- 비율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 그릇
  김윤나 지음, 카시오페아, 2017
-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류쉬안 지음, 다연, 2018

책 속 밑줄 긋기 = 『물리학에서도 기준틀(혹은 준거 체계, Frame of Reference)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역시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X축과 Y축)를 뜻한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mindset),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p. 23)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포노 사피엔스

최재붕 지음/ 쌤앤파커스 / 2019

인문과 공학을 아우르는 통찰과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출발을 인류의 변화에서 풀어낸 책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성공 전략과 새 시대의 인재상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전 세계의 36억 명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포노 사피엔스 문명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장 깊숙이 진입한 혁명을 철저히 포노 사피엔스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선명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아홉 살 느낌 사전

박성우 지음 / 창비 / 2019

학교라는 사회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각 표현을 그림과 함께 사전 형태로 소개합니다. 이 책은 '가렵다'부터 '환하다'까지 느낌을 표현하는 말 80개를 사전처럼 가나다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장과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은 다양한 감각 표현을 알아 가고, 자기의 감각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더 능동적으로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한생개발 (낙산비치호텔)	4명	객실청소원	09:00~18:00 (주6일)	월217만원
	1명	하우스키퍼	09:00~18:00 13:00~22:00	월202만원
하나철강(주)	2명	자재배송 운전원	07:00~18:00 (주6일)	월200만원이상 (협의)
지중해풀빌라	2명	객실청소 외부시설관리	10:00~17:00	1일 7만원
㈜재성정보통신	1명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경력자 협의)
㈜새서울레저 설해원골든비치	5명	수질환경기사 전기,설비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자)	08:30~18:00 (시간협의)	연3,00만원이상
㈜매홍엘앤에프	1명	자재,물류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75만원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발렌타인펜션	1명	객실청소원	10시~16시 (월2회 휴무)	월210만원
대솔영농조합법인	1명	경리사무원	9시~18시 (주5일)	월190만원 (면접후협의)
하조대캠핑카	2명	카라반청소원	11시~16시	시급1만원~ 1만2천원
골든에스앤씨	2명	주방조리사(찬모)	6시~15시/11시~20시 (월6회 휴무)	월210만원
	2명	여성사우나 담당	8시30분~18시 (월6회 휴무)	월210만원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오색그린야드호텔	1명	룸메이드	9시~18시 (주6일)	월210만원
	1명	특산품매장판매원	9시~18시 (주6일)	연봉2,100만원
주식회사윤진 (양양홈마트)	1명	배송운전원	13시~22시 (주6일)	월 200~250만원
	1명	야채,청과담당	13시~21시 (주6일)	월200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5월 22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019년 6월 군민정보화교육 안내

- 교 육 일 : 2019. 6. 3. ~ 6. 28.(월, 수, 금)
- 교육시간 : 주간반 10:00 ~ 12:00 / 야간반 18:30~ 20:30
- 장 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 정보교실
- 교육인원 : 28명
- 신청방법 (전 화) 033-670-2116
  (인터넷) www.yangyang.go.kr (양양군청 홈페이지)
  * 양양군청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구분에서 [분야별정보] → [교육] → [교육신청]
- 교육내용
  · 주간반 : 스마트폰활용, SNS, 컴퓨터활용
  · 야간반 : 스마트폰활용,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편집기술 블로그 · 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법, SNS
- 문의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033-670-2116)

지역 홍보 위한 유튜버(Youtuber)양성 특별강좌

- 교 육 일 : 2019. 6. 3. ~ 6. 28.(매주 화요일)
- 교육시간 : 18:30 ~ 20:30
- 장 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 정보교실
- 교육인원 : 28명
- 신청방법 (전 화) 033-670-2116
  (인터넷) www.yangyang.go.kr (양양군청 홈페이지)
  * 양양군청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구분에서 [분야별정보] → [교육] → [교육신청]
- 교육내용
  · 유튜브 플랫폼 이해 및 채널 만들기, 동영상 촬영 이론 및 실습
  · 영상 기획의 노하우 배우기,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실습
  · 동영상 제작하기(편집 프로그램 사용)
  · 수강생 유튜브 동영상 리뷰
- 문의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033-670-2116)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과목 안내

구분 / 기관별	소 재 지	근 무 시 간 (평 일)	진료과목	비 고
보건소 (670-2537)	양양읍 양양로 9-5	09:00~18:00	내과, 치과	일반의
서면보건지소 (670-2561)	서면 들돌길 10	09:00~18:00	내과, 한의과	일반의
손양보건지소 (670-2362)	손양면 손중로 209	09:00~18:00	안과(내과), 한의과	안과전문의
현북보건지소 (670-2363)	현북면 하조대1길 41-8	09:00~18:00	내과, 한의과	일반의
현남보건지소 (670-2364)	현남면 인구길 53	09:00~18:00	내과, 치과, 한의과	일반의
강현보건지소 (670-2365)	강현면 동해대로 3549	09:00~18:00	내과, 한의과	일반의

※ 근무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전화로 확인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발탄 및 유기탄 발견시 주민신고 안내

〈과거 사고사례〉
- □ 15년 6월, 철원 사격장에서 민간인이 고철수집 중 불발탄 폭발로 현장 사망
- □ 18년 7월, 춘천 공사현장에서 불발 항공탄(6.25 전쟁 당시 사용)을 발견 / 신고 후 처리
- □ 19년 5월, 고성 어천리 사격장 일대에서 아군 90밀리 불발탄을 발견 / 신고 후 처리

〈불발탄 및 유기탄 발견시 신고 전화 및 행동요령〉

1. 불발탄 및 유기탄 발견 즉시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
   ☎ 군 부대: 1338 / 안보지원사령부: 1337 / 경찰: 112
   * **일상(13)**생활에서 **삼팔(38)**선을 넘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물건, 선박은 1338로 신고해주세요!
2. 불발탄 및 유기탄 발견시 다른 곳으로 임의운반/이동금지
3. 불발탄 및 유기탄을 만지거나 망치 또는 돌멩이로 두드리는 등 충격행위 금지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에 접근금지 경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 목표면적 : 132ha
- 사 업 비 : 472,600천원(국 378,080 · 도 28,356 · 군 66,164)
- 대상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 농지
  – '17년, '18년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 '17년,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대상 농업인(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휴경' 신청시에는 최근 3년('16~'18)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작목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른 지원금 지원(평균 340만원/ha)
  –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품목군별 지원단가

구분	조사료	일반 · 풋거름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단가 (만원/ha)	430	340	325	280	340

- 사업신청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19. 6. 28일까지

2019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안내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판정자
-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80~90% 금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제품가격의 10%
- 접수기간 : 2019.5.1.(수) ~ 6.21.(금)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at4u.or.kr), 우편, 방문 ※ 전화접수 불가
- 전화상담 :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 구비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6종), 장애인 · 국가유공자증명서, 사회활동증빙서류 등
- 결과발표 : 2019.7.19.(금), 강원도홈페이지공고, 개별통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정리기간 : 2019. 05. 20. ~ 06. 20.(1개월)
□ 정리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 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신고기관 : 군청 건설교통과, 읍면사무소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19년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열람
– 결정·공시일 : 2019. 5. 31
– 결정필지수 : 115,758필지
– 열람 : 인터넷(일사편리: http://kras.gwd.go.kr/land_info) 및 토지대장 발급
□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 기 간 : 2019. 5. 31 ~ 7. 1(30일간)
– 장 소 : 군청 지적정보부서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 신청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문의: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지적정보부서 ☎033-670-2789/2209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2019년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6월 한달 간 매주 금요일 전문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상담하여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 상담신청 방법 및 기간
– 기 간 : 2019. 6. 7/ 6.14/ 6.21/ 6.28 매주 금요일 11:00 ~15:00시
– 장 소 : 군청 4층 지가상황실
– 신청방법 : 전화로 미리 예약 후 정해진 날짜에 방문 하여 상담
□ 기타문의: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지적정보부서 ☎033-670-2789/2209

제41회

양양문화제

일　　시　2019. **6. 20**(목) ~ **6. 22**(토) 3일간
개 막 식　2019. 6. 20(목) 18:30
장　　소　양양종합운동장
주　　최　양양문화제위원회
주　　관　양양문화원, 양양군체육회
후　　원　양양군, 양양군의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경찰서, 양양소방서
강원동부보훈지청, 지역언론사
관내 주둔군부대, 양양양수발전소

양양문화제위원회